

與 초재선 + 민주 의원들 참석 2차, 3차 가면 핵심인사 동참

■ 고건 원탁회의 누가 참여나 참석인사 20일께 운곽

국민통합신당 창당을 위한 고건 전 총리의 원탁회의 구성이 구체화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탁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정계개편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소위 제3지대에서의 헤쳐모여식 정계개편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단 고건 전 총리의 핵심 측근인 김덕봉 전 총리 공보수석은 원탁회의 참여 인사들이 오는 20일께 운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건 전 총리가 그동안 접촉한 여당 인사들이 원탁회의 참여 및 국민통합신당 창당에 공감대를 나타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노 대통령이 오는 13일 귀국, 정계개편에 대한 또 다른 입장을 밝히 가능성이 높은 데다 정기국회가 오는 15일 폐회되면 여당 내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여당 내의 통합신당과 의원들의 원탁회의 참여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고건 전 총리 핵심 관계자는 1차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여당 의원들은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 계열 등 제정과 소속 초·재선 의원들이 중심이 될 것이며 민주당 의원들도 자연스럽게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근태 의장, 정동영 전 의장 등 소위 열린우리당의 최대 주주들은 2차, 3차 원탁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내부적 논의를 진행하고, 통합신당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확산될 경우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연말께 원탁회의가 구성될 것이지만 성격과 레벨에 따라 복수로 출범할 수 있다”고 말한 점은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탁회의는 일단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대표성을 띤 정치권 인사들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다가 상황이 무르익을 때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원탁회의의 출범 시기와 관련, 고건 전 총리 측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늦어도 오는 26일에는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는 15일 정기국회 폐회 이후, 여당 내부의 논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26일께가 적당하다는 것이다.

신중식 민주당 의원은 “일단 정계개편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원탁회의를 오는 22일께 조기 출범시켜야 한다는 조인을 한 적이 있다”며 “늦어도 26일께에는 원탁회의가 출범할 것이며 민주당도 정계개편의 창구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건 전 총리 측은 정치권을 제외한 원탁회의에 참석할 경제계, 시민단체, 재야 인사 등에 대한 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중립성이 있는 신선한 인물들을 원탁회의에 참여시켜, 기존 정치권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고건 전 총리 측 핵심 관계자는 “고건 전 총리가 경제계 인사들과 어느 정도 얘기를 진행시킨 상태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당파 ‘선도 탈당론’ 급속 확산

참정연 등 “비대위 해산” 지도부 “설문조사 강행”

與 친노-반노 갈등 일촉즉발

정계개편을 둘러싼 여당 내부의 통합신당파와 친노 진영의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통합신당파 의원들의 ‘선도 탈당설’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등 열린우리당은 분당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5일 친노 성향의 중앙위원, 당원협의회장, 사·도당 상무위원, 청년위원장 등 270명이 참여한 ‘열린우리당 정상화를 위한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는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근태 의장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해산과 당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촉구했다.

준비위원회는 “비대위가 지난 6개월 동안 국민과 당원에게 보여준 것은 무능과 독단뿐이었다”며 비난하며 “정계개편이나 통합신당 논의 등 당의 진로와 관련한 모든 정치적 입장들은 전당대회를 통해 평가받아야 하고 당의 운명은 당원들

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비위원회에는 참여정치실천연대와 국민참여 1219, 의정연구센터, 신 진보연대, 중단없는 개혁을 위한 전국당원모임(중개혁) 등 당 사수를 주장하는 계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 10일 영등포 당사에서 당원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당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통합신당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비대위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설문조사 문항내용과 방법을 확정, 6~8일 소속의 원 전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또한, 당 지도부는 지난 5월 국회의원 후보 선출 방식과 같이 무기명 설문지를 소속 의원에게 돌린 뒤 원내대표실이 설문 결과를 취합, 오는 8일 비대위 워크숍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 내용은 ▲통합신당 또는 재창당 등 향후 당의 진로 ▲비대위 활동 기한과 역할 ▲전당대

회의 성격 등 크게 세 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합신당파와 일각에선 선도 탈당론을 주장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통령의 태도로 볼 때 전당대회에서 당이 쪼개지더라도 세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으며 결별이 불가피하다면 통합신당파가 먼저 탈당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이다.

통합신당파의 선도 탈당론은 고건 전 총리의 원탁회의 구성과 맞물려 당 내외로 급속히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는 것은 레인덕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당원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 당 사수 입장을 나타낸 노 대통령에 공개 경고하는 발언을 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8일 비대위 워크숍에서 발표되는 설문조사 결과는 여당 내부의 갈등과 진로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오는 13일 귀국, 한발 물러서지 않는다면 여당은 결별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친노 성향의 당직자로 구성된 ‘열린우리당 정상화를 위한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근태 의장이 이끄는 현 비대위를 즉각 해산하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신당 참여나 독자생존이나

오늘 워크숍... 격론 일듯

민주당이 6일 개최하는 ‘국회의원·중앙위원·지역위원장 워크숍’을 둘러싸고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헤쳐모여식 신당론’ 및 ‘독자후보론’ 등 정계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상당한 격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정계개편 방향과 관련, 제3지대에서 열린우리당 탈당 의원들과 고건 전 총리 등 중도개혁 세력과 함께 신당을 만들자는 여론이 대세였다.

그러나 한 대표가 정계개편 과정에서 통합신당이 이뤄진다면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일부 당직자들이 당내 회의에서 ‘민주당 독자후보론’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독자후보론’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외에서는 한 대표를 추종하는 일부 당직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이날 워크숍에서 자

각문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민주당 독자후보론에 이어 독자생존론까지 주장하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한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통합신당 등 정계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워크숍 논의의 결과, 정계개편 방향에서 헤쳐모여식 신당보다 독자후보론이 강하게 제기될 경우 민주당도 상당한 내분이 예상되고 있다.

신중식, 이낙연, 최인기 의원 등 상당수의 현역 의원들이 고건 전 총리와 의연 등을 통한 제3지대에서의 헤쳐모여식 정계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일부터 1박 2일간 천안에서 열리는 워크숍은 정계개편과 관련한 민주당의 방향을 설정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배기운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계개편의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것”이라며 “이날 토의 결과 등을 토대로 당 지도부 회의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與 의원 61% 신당 찬성 호남·충청권 지지율 높아

열린우리당 내에서 정계개편의 방향과 관련, 통합신당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합뉴스가 5일 우리당 소속의원 139명 전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에 응한 응답자 105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응답자 105명 중 통합신당론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61.0%인 64명에 달한 반면, 통합신당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은 8.6%인 9명에 불과했던 것. 우리당 의원 3명 중 2명 꼴로 통합신

당론을 지지한다고 공개한 셈이다. 그러나 10.5%인 11명은 유보적 입장을 취했으며 20%인 21명은 답변을 거부했다.

지역별로는 호남과 충청권 의원들의 통합신당론 지지비율이 높았다. 답변에 응한 이들 지역 출신 의원 26명 중 통합신당론 찬성 및 반대 비율은 각각 73.1%(19명), 7.7%(2명)로 전체 평균보다 통합신당론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호남권 의원 16명 중에 통합신당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이광철 의원 한

명 뿐이었다. 지역의 맹주인 민주당과의 통합을 비롯해 당내에서 통합신당론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이 실제 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11명은 통합신당론에 찬성표를 던졌고, 친노 진영인 서갑원 의원 등 4명은 답변을 유보하거나 거부했다.

충청권 의원 10명 중에서도 통합신당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김종률 의원 한명에 불과했다.

수도권의 경우 조사대상 50명 중에 66%인 33명이 통합신당 찬성 의견을 냈고 반대한다는 입장은 12%인 6명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통합신당론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취한 반면 비례대표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응답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연합뉴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

사람이 자연을 사랑한다지만...
오히려 자연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사람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탑 앞에 작은 소원을 맡게됩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진 않지만
소원을 비는 정성만으로도 사랑을 주는것.
그것이 국제약품이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안과 일반의약품

- 키랄라 점안액
- 신도솔 류점안액
- 비어플 점안액

국제약품 판매처
090-022-0200 (주:신서약품) 충청남도 구례군 신서읍 신서리 100-1

광고심의의뢰 : 878-0100

국제약품이 키랄라와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열매의 열매가 되고, 소나무가 되고, 울릉도 울릉도를 이루고 있습니다.